

살맛나게 하는 사람이 됩시다

룻 3:1-5; 4:13-17

이것이냐, 저것이냐'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만 할 때에, 그 선택의 기준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자신의 편리와 이익을 우선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타인의 입장을 먼저 생각할 것이냐?'에 따라 선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신앙인이란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내 생각과 의지에 따라 살 것이냐?'에 따라서 그 선택과 결정은 달라질 것입니다. 악하고 어둔 세상에서 양심을 지켜 살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고통과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할 경우에는 적잖은 희생을 각오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믿음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매순간 용기 있는 선택과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잠시 잠깐 후에 영원히 사라지고 없어질 세상유익과 명예 때문에 신앙양심을 버리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구약성서에 있는 말씀인데 구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있었던 일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 해주고 있습니다. 유다라는 나라의 베들레헴으로부터 한 가족이 모압 땅으로 이사갑니다. 모압땅은 유다나라의 동쪽에 있습니다. 가서 그 가족의 두 아들이 모압 땅의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아들과 그의 아버지가 거기서 그만 죽고 맙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 나오미는 고향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갔고, 두 며느리 중 한 명도 시어머니를 따라 갔습니다. 그 며느리의 이름이 룻입니다. 룻과 그 시어머니가 베들레헴에서 돌아 왔을 때는 농부들이 보리를 추수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추수를 할 때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보리를 조금 남겨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룻은 들에 나가 보리를 주웠습니다. 룻은 바로 보아스라고 하는 농부의 들판에서 보리를 주웠습니다. 보아스는 종들을 시켜 룻을 위해 좀 더 많은 보리를 남겨두라고 했습니다. 어느날 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는 룻을 보아스의 일터로 보냈습니다. 나오미는 거기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룻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룻은 보아스가 일하는 동안 숨어 있었고 일을 끝낸 후 자려고 누웠을 때 그만 잠에서 깨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발끝에 누워있는 룻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룻은 보아스에게 결혼해 달라고 했고 그는 아침에 대답하겠노라고 말하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는 룻에게 결혼하자고 했고 결혼해서 후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오벳이었고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 룻은 참으로 현명한 선택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너무나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룻이 그 당시에 그런 선택을 한다고 하는 것은 보통 용기가 아니고서는 결정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가 미래에 될 일을 미리 내다보고 그런 결정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룻은 다만 자신의 형편보다는 시어머니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그런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룻의 그런 착한 마음을 시어머니가 되는 나오미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자나 깨나 '며느리 룻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줄까?'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친척이 되는 보아스와 결혼시키기로 계획합니다. 그리고 룻의 재혼을 위해 나오미는 치밀한 계획을 세웁니다.

샌안토니오연합감리교회
한대섭 목사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자신의 생각을 말하자, 룯은 “어머님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겸손히 순종했습니다.

요컨대, 룯은 시어머니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시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던지 그 이유를 따지지 않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가 그렇게 된 것은, 말할 것도 없이 룯이 자신을 포기하고 희생했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룯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때, 동네 사람들이 찾아와 나오미가 득손하게 된 것을 축하하면서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이 아이가 당신을 살맛나게 해주겠군요!”하고 말했습니다. 또, 어떤 번역은 “당신에게 새로운 삶을 안겨다 줄 것이며, 나이 많은 당신을 잘 보살펴줄 거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아들 일곱보다 더 나은 당신의 며느리가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남을 배려할 줄 아는 며느리가 손자를 낳았으니, 그 손자 또한 자신의 할머니를 잘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보살펴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옳은 말입니다. 자신의 형편보다 남의 입장을 먼저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많으면, 그런 공동체나 사회는 살맛나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의 입장과 형편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어야,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살맛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룯을 본받아 살아야 합니다. 룯은 자기 입장보다 시어머니의 형편을 먼저 돌아본 나머지, 시어머니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희생했습니다. 그 결과, 그녀는 시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렸을 뿐만 아니라 동네사람들도 살맛나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사람들로 부터 훌륭한 며느리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 중에서 성군 다윗이 배출되었고, 구주 예수님도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낳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육신적인 가족의 계보를 잇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믿음의 계보를 잇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있어서는 복음으로 낳은 자들이 하나님을 더욱 기쁘게 해 준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나 오네시모는 복음으로 낳는 자들입니다. ‘믿음 안에서 나의 친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디모데전서 1:2)’ ‘결박 중에 낳은 나의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청하노라(빌레몬서 1:10)’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란 스승의 가르침과 삶을 본받고 따르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고 따라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무엇을 본받고 살아야 할까요?

1.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의 오랜 선조 중에는 ‘룯’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룯의 희생정신이 주님께로 이어져 내려왔을 것입니다. 룯의 희생이 있었기에, 나오미와 보아스의 가정이 영화롭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있었기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수치스럽고 더러운 죄에서 벗어나 영화롭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죄의 세력을 물리치신 것은 총이나 칼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권력이나 재력의 힘을 빌려서 물리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주께서는 자기를 희생 제물로 드려서 죄의 세력을 영원히

샌안토니오연합감리교회
한대섭 목사

제거하셨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9:28 에서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들의 죄를 제거하시기 위하여 자기 몸을 드려 한 번 죽으신 것입니다.’고 했습니다.

예전에 ‘환경스페셜’이라는 TV 프로그램에서 가시고기의 삶이 소개되었었습니다. 풀뿌리 속 등지에 암컷이 수정란을 낳아놓으면, 아빠 가시고기는 15 일 동안 먹지도 자지도 않고 지느러미로 부채질하면서 산소를 공급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더 큰 적이 나타나도, 아빠 가시고기는 죽음을 각오하고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런데, 15 일 후에는 더욱 놀라운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목숨을 내놓고 새끼들을 지키던 그 아빠 가시고기는 아직 체힘으로 먹이를 구할 수 없는 새끼들로 하여금 자기의 몸을 뜯어먹게 함으로써 성장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빠 가시고기는 자신의 몸을 고스란히 자식들에게 다 뜯기면서 일생을 마치고 있었습니다. 한낱 미물에 불과한 가시고기도 것처럼 숭고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 살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겉모습만 번듯하고 말만 그럴싸하게 하는 교인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헌신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하다’고 말하면서, 실제 행동으로는 아주 인색한 모습을 보여주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 장 38 절 이하에는 아주 대조적인 두 부류의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학자들입니다. 이들은 말만 아주 그럴싸하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동네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회당이나 잔칫집에서는 높은 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아주 양심적이며 선하게 사는 사람, 그리고 친절한 사람인 것처럼 꾸민다.’고 주께서는 그들을 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실상은 겉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은 아주 인색하고 거만했습니다. 입으로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다니면서도, 실제 헌금하는 것을 보면 전혀 은혜스럽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런 율법학자들과는 아주 대조적인 사람 하나가 마가복음 12 장 42 절 이하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마침 그때, 사람들이 헌금하는 걸 지켜보고 계셨는데, 한 때의 부자들이 몰려와서 떠들썩하게 헌금함에 많은 돈을 넣고 갔습니다. 그 뒤에, 아주 가난한 과부 하나가 조심스럽게 나타나 단돈 두 렵돈을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주께서 이 광경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저 가난한 과부는 누구보다도 많은 헌금을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모두 다 넉넉한 데서 얼마씩을 떼어 넣었지만, 이 과부는 가난하게 살면서도 자신의 가진 것 모두를 털어 넣었다.” 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재산의 모든 것을 다 바쳐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헌금하기 위해서는 희생하고 헌신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거나, 부자라는 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헌금은, 진정한 의미에서 헌금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이웃과 사회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는 생활이야말로 진정한 감사인 것입니다.

샌안토니오연합감리교회
한대섭 목사

2. 살맛나는 세상을 만드는데 애쓰셨던 예수님을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룯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희생함으로써 시어머니를 정성껏 봉양했을 때 나오미의 가정이 새롭게 변성하면서 살맛나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주님의 희생정신을 본받아 살아감으로써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살맛나는 세상으로 만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윗사람이 아랫사람의 형편과 사정을 잘 이해하며 돌봐야 합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명령하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하지만, 그 명령대로 살아야 하는 아랫사람은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아랫사람 또한 윗사람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따라야 합니다. 사실 룯이 나오미를 섬기듯이 우리가 윗사람을 섬긴다면, 어느 가정이든지 다툼이 일어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 공정한 하나님의 심판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억울하고 속상하더라도, 자신의 위치에서 자기 본분을 다한다면, 좋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에 대한 보상을 해주시리라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공짜가 없는 법입니다. 심은 만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을 거두게 될 것이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칙을 지키며 좋은 씨를 많이 뿌려야 합니다. 만일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있다면, 더더욱 하나님의 법칙을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의 그 은혜스러운 일들이 다 허사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요컨대, 진실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때에, 또다시 감사할 일이 생기는 법입니다. 감사의 씨를 뿌렸을 때에 감사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진리입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감사하며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극히 적은 무리 중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돈 몇 푼 더 벌자고 결코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며 살아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을 희생해서라도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헌신하며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살맛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맛나게 해야 할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룯을 본받고 주님을 본받아서 살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룯이 어떻게 복을 받아서 멋있게 살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 정신을 본받아 살아감으로써 더욱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